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양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30. 시편 67 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1-7).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369장

대표기도 / (1부) 김춘자 권사 (2부) 윤결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마가복음 5:25~34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씀 / **“주님께 닿는 믿음”** / 전종남 목사

(Faith That Touches the Lord)

찬 송 / 540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18장, 455장 기 도 / 최승태 안수집사

성경봉독 / 로마서 12:9~13

말 씀 / **“서로 사랑하라.”** / 전종남 목사

(Love One Another.)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309장, 309장

성경봉독 / 디도서 2:15~3:8

말 씀 /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 / 전종남 목사

(A Life Transformed by Grace)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에스겔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권유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예배 위원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박영미 집사	이상혁 장로	최영종 안수집사

7월	1부	2부
안내	문미경	최승태 김영덕B 김정순
헌금	강현주	유병용 황하연 김영화 최인숙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권유진(김영미) 김춘예 김춘자 심상현 양락석(우말순) 장송자 최승태(김상금) 최환철(이동순) 무명1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순천(연윤희) 김영화 문상필 심상현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진태(이기숙) 이상혁(송미숙)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승태(김상금) 최환철(이동순) 한희숙 홍우표(윤명란)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맥추감사: 문미경
선교헌금	심상현 최승태(김상금) 최환철(이동순) 3여
구제헌금	최환철(이동순) *부서헌금: 유초-중고 *구역헌금: 5구역
교육헌금	박광연 최환철(이동순) *주일헌금: 왕지혜 무명2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7/ 19)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왕상18:30~40)

전 종 남 목사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 남쪽에 ‘갈멜산’(Mount Carmel)이 있습니다. 그 정상 부근에는 ‘무흐라카’(El-Muhraqa)라는 곳이 있는데, ‘불이 내린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영적인 가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불, 곧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2:1-4).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무너진 제단을 회복할 때, 하늘의 불이 임합니다(30-32절).

엘리야는 하늘의 불을 구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열두 개의 돌로 제단을 다시 쌓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와 기도, 말씀의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늘의 불이 임합니다(33-35절).

엘리야는 제단 위에 물을 세 번 부어, 인간적인 가능성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렘17:7-8).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3.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불이 임합니다(36-38절).

엘리야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구했습니다. 그 때, 여호와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과 제물을 모두 불사르셨습니다. 오순절에도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며, 가정과 교회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불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